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1월 11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양준모 | www.cubs.or.kr

전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운영 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김도연)

1. 들어가는 말

하버드대 교수였던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벌을 받아 동일한 역사를 되풀이 한다’라고 했다. 과거사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 양쪽 다 새겨야 할 문구다. 현재 논란되고 있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정리와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사 정리 작업의 제반 단계 중 가해 주체의 사과와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보상 등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후속 조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진실 규명한 자료를 토대로 후세에 널리 교육시켜 다시는 불운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생존자는 46명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 및 정부 차원의 조치는 2015년 12월로 일단락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의 전쟁범죄 사실과 우리 피해자에 대한 사실 정리와 기록,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해 전국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운영 현황을 정리해 보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전국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현황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은 대략 6곳이다. 이 중 4곳은 민간이 운영하고, 2곳은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①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성노예 테마박물관으로 1998년 8월 개관했으며,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 소재한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 집’이 운영하며,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역사관은 자료 수집 및 전시라는 박물관 고유의 기능과 일본이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한다. 또한 연구 조사사업과 잊혀진 역사를 바로 세워 후대에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다양한 교육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② 민족과 여성 역사관

‘민족과 여성 역사관’은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부산정대협)’에 의해 2004년 9월 개관되었고, 부산시 수영구에 소재하고 있다. 부산정대협은 1990년 이래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활동해 온 역사자료를 전시하여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지키고 위하기 위해 설립했다. 전시 자료들은 할머니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있었던 위안소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7년 동안 재판을 벌인 영상 및 사진자료, 문서자료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활동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역사관은 식민치하의 고통과 좌절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계 평화운동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③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은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2012년 5월 개관했다. 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또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전시(戰時)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으로 9년여 동안 시민모금을 통해 건립되었다.

정대협은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에 의해 저질러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전시 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저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0년 11월 설립된 민간 단체다. 정대협은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7가지 요구사항-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국회결의사죄, 법적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대협은 꾸준한 연구활동 및 교육활동을 펼쳤고,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12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24년 동안 1천 212회를 개최했다.

④ 회음 일본군위안부역사관

‘회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경기도 광주, 부산, 서울에 이어 2015년 12월 4번째로 개관한 기념관으로 대구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다. 역사관 이름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희망을 꽃피움’의 줄임말 ‘회음’에서 따왔다. 회음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계획 단계부터 건립까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으며, 1920년대 상점으로 지어진 일본식 가옥을 리모델링해 2층 규모로 조성되었다. 1층 전시실에는 위안부의 역사,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등을 전시했고 2층에는 교육관과 대구 경북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야외에는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공간 회음’이 마련되어 있다.

⑤ 독립기념관 제2관 ‘일본군 위안부 전시실’

정부(여성부)는 2009년 8월 독립기념관(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제2관(겨레의 시련관) 내 ‘반인륜적 범죄-위안부’ 전시 코너를 확충·보강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 여성의 피해사실과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 모습

등을 전시했다. 전시관에는 당시 운영되었던 위안소 모형과 위안부로 강제 연행되어 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다. 또한 일본군 개입을 입증하는 문서 및 일제 패망 당시 위안부들을 학살하거나 이국땅에 버린 사실 등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과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활동 등도 포함되어 있다.

⑥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전국 유일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역사자료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15년 12월 부산에서 개관하였다. 역사관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성숙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공사를 시작했다. 부산은 일제 강점기 때 부산항이 대부분의 강제 동원 출발지였고, 강제동원자의 22% 가량이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역사성과 접근성 등을 감안해 2008년 9월 건립 방침을 확정했다.

2014년 10월까지 5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만 5465㎡의 부지에 지상3층 지하4층, 건물연면적 1만 2062㎡ 규모로 지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집한 강제 동원 수기, 사진, 박물류 등을 중심으로 전시한다. 유족을 위한 추도, 기념시설로서의 역할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 역사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⑦ 기타

기타 오프라인 외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사이버 기념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hermuseum.go.kr)’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민들의 역사인식 및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관했던 사이버 역사관을 2007년 확대 개편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일본군 위안부란’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리해 소개하고 있으며, ‘피해자 증언’에는 개별 피해자들의 강제연행과정과 위안소 생활 등을 생생히 알 수 있는 영상증언, 기록증언, 전 일본군 기록증언 등을 소개했다. ‘피해자 지원’을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위안부의 어제와 오늘’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단체의 노력과 국제사회 논의 등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료실’에서는 일본군의 위안소 이용규칙, 이용요금, 성병예방 조치 등을 알 수 있는 위안부 문헌자료와, 2000년 민간법정, UN과 ILO 보고서 등이 정리되어 있는 국제자료실, 국내연구자료 등이 정리되어 있는 국내자료실을 비롯해 신문보도자료 모음, 영사자료관, 사진자료관 등을 볼 수 있으며, 영어 사이트 이외에 중국어와 일본어 사이트가 추가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외에도 ‘일본군성폭력피해자 사이버역사박물관(www.ushmocw.org)’이 있다. 사이버역사박물관은 2013년 12월 개관했으며, 미국 뉴저지 한인사업가에 의해 미주 최초로 개관되었다. 한인사업가 한지수씨는 “일본이 왜곡한 중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리고 후세들에게 인권과 평화 교육을 하기 위한 사이버 역사박물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개관 동기를 언론에 밝혔다. 일본군성폭력피해자 사이버역사박물관은 여성가족

부가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의 자료들을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제도, 피해자증언, 일본군위안부자료, 추모격력의 글, 갤러리 등 7개 주요 항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DVD 자료, 사진, 생생한 증언 등 사실적 자료들을 중심으로 피해 실태를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 활동 종료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홈페이지(www.jiwon.go.kr)다.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의 조사 결과, 자료수집 등을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3.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은 정부와 민간을 합해 여섯 곳 남짓이며, 사이버 기념관은 3곳이다. 오프라인 상 운영되는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하루 방문객은 기념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300명 선이다.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념관은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 후세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 협상 시위에 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정작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이에 못 미치는 듯하다.

더구나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는 200여명 남짓이지만 학계에서 주장하는 숫자는 몇 십만에 이른다. 정부와 학계사이의 간극만큼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진실규명 한 결과를 국민들과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에 잘 홍보하여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